

##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의 형사법적 고찰

### Criminal Legal Consideration of Sports Match Fixing

설종호(Seol Jong Ho)\* · 정신교(Jeong Shin Kyo)\*\*

#### ABSTRACT

Sports games are wowed by unpredictable tensions. Nevertheless, the act of acquiring property interests through illegal gameplay is a criminal offense that obeys the legal obligations to be maintained as a member of a healthy society. The game manipulation of these sports games is against the normal function of sports such as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games and losing the motivation of many sports officials and athletes.

As mentioned above, the operation of sports competitions can be punished under criminal law such as gambling, opening of gambling, guilt, breach of duty, interruption of work, and fraud. In particular, the manipulation of sports events that are subject to the issuance of various lotteries is a criminal offense that can be punished under the special criminal law related to sports lottery tickets. Nevertheless, illegal sports gambling sites are constantly being caught on the Internet, and in some cases they are recruited in secret ways and operated by unknown methods.

The government has prepared and implemented various measures, such as the application and punishment of stric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reinforcement of ethics education for athletes such as athletes. For such sports game operation, the definition of relevant laws and the government-wide crackdown on illegal sports gambling sites should be continued.

Key words: Sports events, game play, gambling crime, illegal gambling sites, lottery tickets

\* 주저자 : 김천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교수

\*\* 교신저자 : 목포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부 교수, 법학박사

## I. 서론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에 대해 이를 전혀 모르는 관중과 팬들이 참여하여 자신이 응원하는 팀에게 복표를 구매했다면 이는 스포츠정신에도 어긋 날뿐 아니라 스포츠경기의 진정성과 스포츠발전에도 매우 큰 문제를 야기한다. 스포츠 경기는 승부의 불확실성과 경기종료 시 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관중들은 흥미를 느낀다.<sup>1)</sup> 그러나 사전에 경기에 대한 결과가 정해져 있거나 경기의 내용이 인위적으로 조작된다면 스포츠경기에 대한 관중의 흥미는 사라질 것이며 사회제도로서의 스포츠는 존속할 가치가 없다.<sup>2)</sup>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스포츠 승부조작은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인터넷의 보급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인터넷 도박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베팅을 할 수 있고 은밀성과 중독성이 그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국내 프로축구(2011), 프로야구(2012, 2016), 프로농구(2015), 프로배구(2016) 등 4대 프로스포츠가 승부조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e-스포츠(2010)에도 승부조작이 발생하였다.<sup>3)</sup> 스포츠 승부조작은 심판매수, 병역비리, 조직폭력배의 개입, 불법사이트 개설 등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하나의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스포츠경기 승부조작(sports match-fixing)은 경기의 승·패가 정해져 있거나 경기내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이다.<sup>4)</sup> 스포츠경기의 승부조작은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 경쟁성, 결과불확실성을 훼손하며 스포츠산업의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범죄행위로 취급되고 있다.<sup>5)</sup> 이에 정부는 승부조작에 대해 무관용 원칙, 법률 개정을 통한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등을 내놓았다.<sup>6)</sup> 2018년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는 약 100조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7)</sup> 그 중 불법 스포츠 도박의 비중은 25%인 25조 원이며 이는 합법사행산업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활 속 프로

1) Pawlowski, T., & Anders, C. (2012), Stadium attendance is German professional football-the importance of uncertainty of outcome reconsidered. *Applied Economics Letters*, 19(16), pp. 1553-1556.

2) Andreff, W. (2014). French professional football: How much different? In J. Goddard & P. Sloane (Eds.),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professional football*(pp.298-321). Edward Elgar.

3) 전민수·박재현·최장환, “성인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승부조작 경험에 관한 실태”,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6, 36쪽.

4) IOC (2015). Olympic movement code on the prevention of the manipulation of competitions. IOC Code of Ethics and other texts.

5) IOC (2015). Olympic movement code on the prevention of the manipulation of competitions. IOC Code of Ethics and other texts.

6)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main.jsp>)

7) 스트레이트뉴스, “합법 뎀춘사이 100조 넘어선 국내불법도박”, <http://www.straightnews.co.kr/nes/articleView.html?idxno=65988>, 최종검색일: 2020. 1. 30.

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우 2010년 이후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사태를 격어면서 많은 자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불법도박 사이트에 의한 승부조작은 근본적인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특히 각종 형사특별법상 미흡한 규정을 정비하고 스포츠 관여자의 윤리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윤리현장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고는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의 원인과 특징을 검토하고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에 대한 형사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 Ⅱ.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의 현황

### 1. 스포츠 경기 승부조작의 원인

#### 1) 대학입시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은 대체로 금전적 이익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 외에도 입시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입시를 위해 승부조작이 발생하고 있다.<sup>8)</sup> 현재는 엘리트 스포츠의 폐단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이 강구되고 있기는 하나<sup>9)</sup> 스포츠를 통한 대학진학이 상급학교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4년 발생한 전국체전 태권도 고등부 지역예선전에서 경기를 50초 남기로 5대1로 앞서던 선수가 심판의 고의적인 7번의 연속된 경고로 역전패하자 패한 선수의 아버지는 승부조작을 주장하면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sup>10)</sup> 결국 이와 같은 문제는 승부조작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승부조작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 2) 금전적 욕구

스포츠 승부조작의 대부분은 프로스포츠에서의 복권(스포츠토토)에서 비롯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각종 방식의 투표권 발행과 판매는 합법적인 복권사업이다. 이 경우 각각의

8) 박상기, “스포츠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3호, 2011, 223쪽.

9)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제도 개편, 소년체전 개편 등이 있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041642079082?did=PA&dtype=3&dtypecode=1954>, 최종검색일 : 2020. 2. 1).

10) 중앙일보, 2014, 9, 16, 아버지 죽음 부른 ‘태권도 승부조작’ 사실로, <https://news.joins.com/article/15815317>, 최종검색일 2020. 2. 2.

스포츠 종목에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결정되는데 불법 승부조작 행위자들은 이 배당금액과 경기의 승패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다. 이들 승부조작 행위자들은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통해 이익을 얻는 이른바 배후세력이다. 특히 폭력조직이 스포츠에 개입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관중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우리나라 스포츠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승부조작행위는 실제 사이버공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는 사라지고 기만적인 배팅행위만 존재할 뿐이다.

### 3) 기타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를 받는 선수들의 일탈행위도 원인이 될 수 있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 거액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다수 존재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입이 보장되지 못한 경우 승부조작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선수 개인의 윤리의식의 부재 및 일탈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에서의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일 것이다. 윤리의식이 없다면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단체, 더 나아가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의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2.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의 현황

### 1) 스포츠승부조작의 특징

첫째, 스포츠승부조작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부조작의 의심이 있다하여 임의조사만으로 신속한 증거를 수집하기는 매우 어렵다.<sup>11)</sup> 특히 관련자들 사이의 진술이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하고 증거수집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예컨대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는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수가 승부조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매우 힘들다.

둘째, 광범위한 피해자가 존재한다. 스포츠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는 물론 구단, 관중, 대중매체를 통한 시청자뿐만 아니라 그 경기에 합법적으로 배팅한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4대 프로스포츠의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불법적인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참여자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 가입시키는 등 치밀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내부의 고발

11) 노재선,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검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35쪽.

자가 아니면 단속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스포츠 승부조작 사건들은 대부분 스포츠베팅이 결부되어 있다.<sup>12)</sup> 이에 대해 스포츠베팅과 승부조작의 관련성이 없다는 조사도 있다.<sup>13)</sup>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스포츠 승부조작은 베팅과 관련성을 가진다. 예컨대 세계적 규모의 유럽 축구리그의 경우 리그 강등에 따른 중계권료와 광고수입의 변화 등 금전적 이윤으로 인한 승부조작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부조작은 이에 관계한 모든 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스포츠 승부조작은 계속성을 띤다. 미국의 1919년 블랙삭스 스캔들<sup>14)</sup>은 특별한 형태의 변화가 없이 지속적인 유형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즉 선수들이 대가를 받고 고의로 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의 승부조작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들은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 2)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의 실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친 국내 불법도박 실태조사에서 2008년 1차 조사당시 53조 7천억 원이던 국내불법 도박의 규모는 2012년 2차 조사에서 75조 1천억 원으로, 2015년 3차 조사에서 84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조사했다.<sup>15)</sup> 최근에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미 100조원을 넘어섰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규모가 22조4천억 원의 합법사행사업의 5배에 육박하고 있다.<sup>16)</sup> 특히 스포츠 승부조작과 관련된 불법사이트가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스포츠 승부조작과 불법도박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12) Forrest, D. (2012). The threat to football from betting-related corru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Finance*, 7(2), p. 99.

13) Gorse, S., & Chadwick, S. (2011). The prevalence of corruption in international sport: A statistical analysis. Centre for the international business of sport. Retrieved from [http://www.eu-ssa.org/essa\\_wp/wp-content/uploads/2013/08/The-Prevalence-of-Corruption-in-International-Sport.pdf](http://www.eu-ssa.org/essa_wp/wp-content/uploads/2013/08/The-Prevalence-of-Corruption-in-International-Sport.pdf)

14) 1919년 월드시리즈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선수 8명이 모의해 승부조작에 가담했고 신시내티에게 고의로 패한 사건이다. 이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 8명은 영구제명 되었다(서울신문 2017. 1. 15, '돈에 현혹된 스포츠정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16025006&wlog\\_tag3=daum](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16025006&wlog_tag3=daum), 최종검색일: 2020. 1. 25).

15)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 사행산업업백서, 2017, 201쪽.

16) 스트레이트뉴스, "합법 뽕춘사이 100조 넘어선 국내불법도박",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88> 검색일: 2020. 1. 30.

〈표1〉 2018년 국내 사행산업 매출규모<sup>17)</sup>

구분	종목	매출액	비율	업종비율
카지노	외국인전용	1조6,253억	7.3%	13.6%
	강원랜드	1조4,001억	6.3%	
경주류	경마	7조5,376	33.9%	45.7%
	경륜	2조515억	9.2%	
	경정	6,210억	2.8%	
복권류	체육진흥투표권	4조7,428억	21.2%	40.7%
	복권	4조3,848억	19.6%	
기타	소싸움	273억	0.1%	
계		22조3,904억	100%	

## (1) 프로축구 승부조작

프로축구에 대한 승부조작 소문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불법배팅 사이트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다. 프로축구 승부조작사건은 2011년 프로축구 K리그 선수들이 불법도박 브로커에 매수되어 2009년부터 2010년, 2010년부터 2011년 2개 시즌의 18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사건이다.<sup>18)</sup> 이 사건 일부 선수들은 자신만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친·인척의 명의를 이용하여 직접 복권구입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육진흥법(이하 ‘진흥법’)상 스포츠토토(주)는 토토편권과 프로토 복권으로, 프로토 복권은 ‘승부식’<sup>19)</sup>과 ‘기록식’<sup>20)</sup>으로 나뉘는데 이 사건에 가담자들은 주로 프로토 승부식 복권을 이용하였다.<sup>21)</sup> 기록식의 경우 한쪽 팀의 선수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적중 확률이 높지 않으나 승부식의 경우 각 경기의 승부에 대해 미리 배당률이 정해지면 그 중에서 2-10개를 골라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승부조작에 가담 할 팀의 선수를 매수하여 그 경기에 패하게 하면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 때문이다. 이 같은 승부조작을 통해 브로커들은 각 경기에서 3.2배의 배당을 받아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당시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경기에 승패를 위해 수비나 공격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경기에 임했다.<sup>22)</sup>

17) 스트레이트뉴스, “합법 댄스사이 100조 넘어선 국내불법도박”, <http://www.straightnews.co.kr/nes/articleView.html?idxno=65988> 검색일: 2020. 1. 30.

18) 이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은 승부조작 대가로 K리그 1경기에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분배하였고, 브로커는 1억 9,000만원 상당 복권을 구매하여 3배가 넘는 당첨금을 받았고, 여기에 가담한 자들도 다량의 복권구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였다(박상기, 앞의 논문, 225쪽).

19) 대상경기 중 자신 있는 경기(2개-10개)를 선택하여 예상 결과(홈팀 승/무/패/ 양 팀 득점 총 합의 언더/오버)를 맞히는 게임(<http://www.sportstoto.co.kr>).

20) 최대 24개 게임 중 관심 있는 게임을 선택하여 경기 결과를 맞히는 게임(<http://www.sportstoto.co.kr>).

21) 문화실·박영진, “스포츠 승부조작의 형사책임과 형사법적 대책”, 한국체육학회지, 제51권 제3호, 2012, 3쪽.

22) 수비수와 미드필더는 형식적으로 수비하고 고의로 파울을 하여 퇴장이 되고 개인플레이로 같은 팀의 수비수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경기에 임하였고, 공격수는 결정적인 기회에 득점을 하지 않았

## (2) 프로야구 승부조작

2011년 K-리그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과 2012년 3월에는 프로야구에도 광범위한 승부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선수가 대가를 받고 경기 내용과 승부를 조작하였다. 2012년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K리그 승부조작 사건과 프로 배구의 V-리그 승부조작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사건에 연루된 한 브로커가 한국프로야구에서도 승부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프로야구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선수들이 승부조작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문OO, 박OO, 김OO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이들 중 박OO과 김OO은 승부조작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불구속, 구속 기소되었고, KBO는 이 두 선수를 영구제명 한 사건이다.

프로야구 김OO 선수는 “승부조작에 절대 가담한적 없으며 진실은 끝까지 가면 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승부조작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지만 결국엔 승부조작에 관여했다고 자백하였다. 김OO 선수는 대학야구 선수 출신 브로커와 짜고 두 차례에 걸쳐 천만 원 상당을 받고 고의로 첫 회에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를 조작했으며, 김OO 선수 외에 같은 팀이었던 박OO 선수도 김OO 선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승부조작을 실행하였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은 “두 선수가 가족이 아파 돈이 필요했고 이로 인해 빚을 많이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sup>23)</sup> 위의 내용을 보면 첫 회에 볼넷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sup>24)</sup> 이 사례에서의 승부조작 실행을 보면 승부 조작이란 승부의 결과(승패)와 상관없이 경기 내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승부조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프로야구의 다양한 승부 예측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로야구는 다수의 선수가 경기에 임하고 개인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승부를 조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1회에 볼넷을 나오게 하거나 몸에 맞는 볼을 나오게 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든지 하여 베팅을 하게 하였다. 특히 프로야구는 베팅이 제한되는 정식 스포츠토토와는 달리 불법적인 도박 사이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베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부조작이 매우 용이하였다.

## (3) 프로배구

프로배구의 승부조작은 2010·2011년 남자선수 14명이 17경기와 2011년 여자선수 2명이

고 골키퍼도 상대팀의 공격을 적극 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였다(문화실·박영진 위의 논문 3쪽).

23) 조선일보, 2012. 2. 29, “프로야구 김OO 선수 승부 조작했다 자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9/201202290016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9/2012022900164.html), 최종검색일: 2020. 1. 25.

24) 대구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2고단1405 판결.

1경기에서 매 경기 수백만 원의 대가를 받고 일부 경기에서 실수를 하여 자신의 소속 팀이 경기에 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였다.<sup>25)</sup> 이 경기에 승부조작을 주도한 브로커는 선수에게 받은 정보를 토대로 거액을 배팅하여 수익금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사건은 체육진흥투표(스포츠토토)가 아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승부조작을 하였다는 점이다. 프로배구의 경우 승률이 떨어지는 팀이 일정한 점수를 넘어서는 선에서 패할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핸디캡 방식’)으로 사전에 매수한 선수들에게 주문하여 배팅하였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도 실수를 가장하여 마치 범실인 것처럼 경기를 하였다.

#### (4) e-스포츠 승부조작 사례

e-스포츠의 경우 2010년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을 꼽을 수 있다.<sup>26)</sup> 당시 온라인 게임은 학생 등 젊은이에게 인기를 끌고 있었고 많은 청소년들이 즐겨 하는 오락이었다. 뿐만 아니라 프로 e-스포츠 구단이 생겨나고 프로게이머는 청소년에게 선망의 직업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당시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해당 프로게이머는 브로커로부터 경기당 100만원부터 7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하였고 이에 가담한 전·현직 프로게이머는 11명이었으며 브로커 3명,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배팅과 배당을 받은 2명 등 총16명이 적발되었다.

### Ⅲ.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의 형사책임

#### 1. 승부조작과 형사특별법

협회 등이 주최한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승부조작이 발생할 경우 스포츠 경기에 따라 협회나 연맹의 스포츠자치규정인 상벌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해당 상벌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승부조작 실행자인 선수, 감독, 심판 등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게 된다. 만일 실행자 등의 승부조작이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상벌규정과 함께 그 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법이란 승부조작을 규제할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법률을 말한다.<sup>27)</sup>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형사특별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국

25) 연합뉴스, “프로축구 이어 프로배구도 승부조작 적발”, 2012년2월8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001&aid=0005502267> 최종 검색일 2020. 1. 30.

26) 연합뉴스,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집행유예, 2010년10월22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4722336> 최종검색일 : 2020. 2. 4.

27) 직접적이란 말은 법률의 내용이 직접 승부조작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간접적이란 말은



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 등이 있다.

## 1) 국민체육진흥법

### (1) 의의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체력의 증진 그리고 건전한 정신함양을 통해 명량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체육을 통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 제1조).

### (2) 승부조작 관련 처벌규정

체육진흥투표권(이하 ‘복권’) 발행 대상 운동 경기(이하 “운동 경기”라고 함)의 선수<sup>28)</sup>,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운동경기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이 법 제47조 제1호),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복권 또는 정보 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서 결과를 맞춘 자에게 재물·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이 법 제47조 제2호)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이 법 제47조).

운동 경기의 선수<sup>29)</sup>,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이 법 제48조 제1호), 운동 경기의 선수<sup>30)</sup>,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이 운동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그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이 법 제48조 제2호), 유사행위-복권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 자, 복권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복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및 복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그 밖에 복권 발행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복권을 구매, 알선하거나 양도받는 행위를 한 경우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경우(이 법 제48조 제3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 법 제48조 제4호), 유사행위 한 경우(이 법 제48조 제5호), 위계나 위력으로 복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시행을 방해한 경우(이 법 제48조 제6호), 유사행위를 위해 해당 운동경기의 관련 정보를 제공자와 유사행

법률의 내용이나 그 목적이 직접 승부조작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직접적·간접적 법률에는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그를 규정한 특별법(국민체육진흥법, 경륜·경정법, 한국마사회법)과 일반법인 형법과 민법이 있다.

28)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동법 제47조 제1호).

29)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동법 제48조 제1호).

3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동법 제48조 제2호).

위를 홍보하거나 복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한 경우(이 법 제49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준 경우(이 법 제49조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법 제49조).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법 제49조의 2).

## 2) 경륜·경정법

### (1) 의의

경륜·경정법은 해당 경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시행·보급하여 국민여가 선용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국민체육진흥의 도모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자전거 및 모터보트경기의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 제1조).

### (2) 승부조작 관련규정

이 법 제26조는 위계나 위력으로 경주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한 시행을 방해 한 자(이 법 제26조 제1호), 경기장 안으로 무단진입하거나 이물질을 던져 경기를 방해한 자 또는 경기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한 자(이 법 제26조 제2호)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27조는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가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 주선, 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한 경우(이 법 제27조 제1호), 경주에 대해 영리목적으로 도박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이 법 제27조 제2호)와 그 상대방이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경주사업자, 그 밖에 경주 운영에 종사하는 자에 해 당하는 경우(이 법 제27조 제3호)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제29조는 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법 제29조 제1항). 선수나 심판이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 제29조 제2항). 이 법 제30조는 선수 또는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거나 이익의 제공을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 제30조). 이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 법 제31조). 이 법 제31조는 선수나 심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와 약속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규정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주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승자투표권을 발매한 경우와(이 법 제34조 제1항), 경주에 관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 경주사업자, 이 법에 따라 선수 또는 심판으로 등록한 자, 미성년자, 그 밖에 경주 운영에 종사하는 자가 승자투표권을 구매, 주선하거나 양도받는 경우(이 법 제34조 제2항)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한국마사회법

#### (1) 의의

한국마사회법은 마사회의 조직과 운영,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마의 공정성, 원활한 보급을 통한 말 산업 및 축산 산업의 발전과 국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 제1조).

#### (2) 승부조작 관련규정

이 법 제50조는 마사회가 아닌 자가 경마를 시행하는 경우(이 법 제50조 제1항 제1호)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맞춘 자에게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하 “유사행위”라고 함)(이 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영리 목적으로 마권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자(이 법 제50조 제2항 제2호)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이 법 제50조 제1항 제2호)와 그리고 그 상대방이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마사회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미성년자,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자(이 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출주할 말의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이는 약물, 약제, 그 밖의 물질을 사용한 자(이 법 제50조 제1항 제4호), 경마에 관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할 목적으로 경주에서 말의 능력을 발휘시키지 아니한 기수(이 법 제50조 제1항 제5호),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와 하게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이 법 제50조 제1항 제6호)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법 제50조).

이 법 제51조는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이 법 제51조 제1호), 조교사·기수 및 말관리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자(이 법 제51조 제2호),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할 의사를 표시한 자(이 법 제51조 제3호), 위계(僞計)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치거나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이 법 제51조 제4호), 경주로, 예시장(豫視場), 말의 이동통로 등에 무단 진입하거나 이물질 등을 던져 경주 시행을 방해한 자 또는 기수·개최운영위원 등 경마운영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경마 시행을 방해한 자(이 법 제51조 제5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이 법 제51조 제6호), 제11조제4항 제5호<sup>31)</sup>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이 법 제51조 제7호), 이 법 제48조제1항<sup>32)</sup> 또는 제2항의 행위의 상대가 된 자(이 법 제51조 제8호), 이 법 제48조제3항 제2호<sup>33)</sup>를 위반한 자(이 법 제51조 제9호), 이 법 제49조제2항<sup>34)</sup>을 위반한 자(이 법 제51조 제10호)

이 법 제53조는 이 법 제48조 제3항 제3호<sup>35)</sup>를 위반한 자(이 법 제53조 제1호), 이 법 제49조 제1항<sup>36)</sup>을 위반한 자(이 법 제53조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1)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 32)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33) 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 3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讓受)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2. 마사회의 임직원, 3. 조교사·기수·말관리사, 4. 미성년자,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 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 35) 동법 제48조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 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
- 36) 동법 제49조 ① 마사회는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발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승부조작과 형법

### 1) 승부조작 가담요구(강요죄, 공갈죄, 협박죄)

승부조작의 과정에는 대부분 배후세력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배후세력은 조직폭력배인 경우도 있다.<sup>37)</sup> 2012년 프로축구 사건의 경우 조직폭력배들이 연봉이 높지 않은 선수에게 접근하여 금전적 유혹과 협박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하였다. 이 경우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및 협박죄(형법 제238조), 공갈죄(형법 제350조)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때 선수들에게 접근하여 금품을 제공하면서 승부 조작성 플레이를 요구하는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 가이다. 이에 대해 선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면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조직폭력배의 요구에 대해 보복이 두려워서 외부적으로 표현하기 힘들었다면 협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협박에 의해 선수들이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해당하는 경기를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의무 없는 이에 해당한다.

선수의 입장에서 볼 때 승부 조작은 자신의 선수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가담하기 어렵다. 이 때 선수가 승부조작에 대해 더 이상 불개입 의사를 보일 때 브로커나 전주가 선수를 협박하여 계속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sup>38)</sup> 협박죄는 단순히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면 성립하기 때문에 브로커나 전주가 승부조작 경험이 있는 선수에게 승부조작에 가담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표시를 고지하면 성립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주나 브로커가 선수를 협박하는 목적은 승부조작을 통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므로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협박을 통한 재물이나 재산상이익이 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

### 2) 불법 사이트 개설과 베팅행위(도박죄, 도박장소개설죄)

도박은 재물·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형법은 도박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246조). 판례도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한 기회에 재물의 득실을 따지는 바, 여기에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

37) 박상기 앞의 논문 229쪽.

38) 김두상,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관한 형사법적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2016, 165쪽.

자의 능력에 의해 결과가 다소 영향이 미치더라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sup>39)</sup>고 보았다.

스포츠경기의 승부조작은 합법적 방법(스포츠토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도박의 형태로도 많이 행해진다. 예컨대 사설 사이트를 개설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이는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형법 제247조)에 해당한다. 주로 브로커가 승부조작에 의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도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이는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된다. 판례는 “인터넷 사이트(고스톱)를 유료화 과정에서 사이트 홍보를 위해 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에 대해 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도박장개장죄를 인정하였다. 즉 도박개장으로 인한 직접적인 대가보다는 이를 통한 간접적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그 이익을 얻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고 하였다.<sup>40)</sup> 또한 승부조작을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였다면 승부조작에 대한 성부와 재산상 이익과는 별개로 도박장개설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서버를 해외에 두더라도 범죄지가 국내이기 때문에 형법(제2조)적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우연성이 배제되고 결과가 정해진다면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된다. 이 경우는 후술한다.

### 3)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행위(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은 경기주체, 정당한 사업자, 구단관계자 등의 업무를 방해한다. 기본적으로 승부조작이 다른 선수들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판례는 “업무방해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며”<sup>41)</sup> 업무의 주체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단체인 프로구단에 대해서도 성립한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당연하나 승부조작이 브로커나 전주의 사주, 즉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브로커나 전주는 업무방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하며 선수와 함께 처벌된다.

### 4) 소속기관에 대한 배신행위(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고(형법 제357조 제1항), 이러한 이익을 공여한 자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형법 제357조 제2항). 승부조작에 가담한 경우 가담한 선수

39)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40)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41)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에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있는가이다. 이 경우 사무의 내용은 반드시 재산상 사무일 필요는 없으나 운동경기가 사무처리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sup>42)</sup> 소속된 단체(기업)에서 일정한 업무를 하는 자라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있다고 본다. 즉 승부조작은 보편적으로 선수들이 특정 전주나 브로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일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이는 배임수재죄와 배임중재죄를 구성한다. 이 경우 선수들이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닌 대가를 받고 부정한 청탁에 의한 부정한 플레이를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브로커나 전주의 경우 실제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지만 배임수재죄와 배임중재죄의 교사범·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

#### 5) 타인에 대한 기망행위(사기죄)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승부조작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범죄는 사기죄이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47조). 즉 브로커나 전주가 승부조작을 위하여 선수를 매수하여 합법적인 복권업체를 기망하여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문제는 기망의 상대방이 합법적인 복권업체가 아니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이다. 이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의한 재물의 사기죄의 검토와 기망방법에 따른 사기죄가 논의된다.

##### (1) 기망방법에 따른 사기죄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은 우연성이 결여와 승·패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가 성립한다. 예컨대 프로스포츠 경기는 단순한 도박보다는 우연성은 높겠지만 사기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스포츠 승부조작의 경우 선수들의 승부조작 플레이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복권 구입자는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결과예측에 대한 베팅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망행위와 착오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즉 스포츠에 참가한 선수의 행위를 기망으로 볼 것인가이다. 스포츠토트의 대상경기의 공정성은 당연하기 때문에 누구도 승부조작을 가정하여 복권을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들은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 기망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승부조작에 대해 가담한 배후세력이 주로 범행계획을 세우고 승부조작으로 인한 큰 수익을 얻기 때문에 이 배후세력을 사기죄의 정범으로 보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을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sup>43)</sup> 가담 선수들도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기 때

42) 박상기, 앞의 논문, 222쪽.

43) 박상기, 위의 논문, 227쪽.

문에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본다.

## (2) 불법원인급여와 재물성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는 급여의 목적이 불법하여 급여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판례는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재물을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sup>44)</sup> 즉 불법원인급여라도 급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주고 취득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여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다.<sup>45)</sup> 스포츠승부조작의 경우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불법도박에 의해 취득한 ‘재물’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불법도박에 의해 취득한 재물의 ‘재물성’이 인정되면 사기죄 성립하며 ‘재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박죄를 검토할 수 있다. 이 때 손해의 발생이 불법을 원인으로 하였다면 사법상 불법으로 인정한 재물에 대한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에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으나,<sup>46)</sup>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와 수익의 취득이 발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IV. 결론

스포츠경기는 예측불허의 긴장감에 팬들은 열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승부조작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저버리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스포츠경기의 승부조작은 경기의 질을 저하시키고 다수의 스포츠 관계자와 선수들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등 스포츠의 정상적인 기능에 반하는 행위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은 형법상 도박죄, 도박장개설죄, 배임수증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복권의 발행대상이 되는 스포츠 종목에 대한 승부조작은 스포츠 복표관련 형사특별법 나아가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고 은밀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에 의해서도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스포츠 승부조작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령의 적용과 처벌, 선

4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45) 김일수, 새로운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1, 365쪽; 박상기, 형법학(제3판), 집현재, 2016, 645쪽; 손동권·김재운, 새로운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392쪽; 이재상,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2, 352쪽; 임웅, 형법각론(제7정판), 법문사, 2016, 409쪽.

46) 김두상, 앞의 논문, 169쪽.



수 등 스포츠 관계자에 대한 윤리교육의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해 관련법의 정의 정비와 더 나아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일수, 새로운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 2001.
- 박상기, 형법학(제3판), 집현재, 2016.
- 손동권·김재윤, 새로운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 이재상,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2.
- 임웅, 형법각론(제7정판), 법문사, 2016.
- 전민수·박재현·최장환, “성인 운동선수들의 스포츠 승부조작 경험에 관한 실태”, 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제18권 제2호, 2016.
- 김두상,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관한 형사법적 소고”,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2016.
- 노재선,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검토”,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문화실·박영진, “스포츠 승부조작의 형사책임과 형사법적 대책”, 한국체육학회지, 제51권 제3호, 2012.
- 박상기, “스포츠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스포츠와 법, 제14권 제3호, 2011.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6 사행산업업백서, 2017.
- Pawlowski, T., & Anders, C. (2012), Stadium attendance is German professional football-the importance of uncertainty of outcome reconsidered. Applied Economics Letters, 19(16)
- Andreff, W. (2014). French professional football: How much different? In J. Goddard & P. Sloane (Eds.),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professional football(pp.298-321). Edward Elgar.
- Forrest, D. (2012). The threat to football from betting-related corru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Finance, 7(2), 99.
- IOC (2015). Olympic movement code on the prevention of the manipulation of competitions. IOC Code of Ethics and other texts.
- Gorse, S., & Chadwick, S. (2011). The prevalence of corruption in international sport: A statistical analysis. Centre for the international business of sport. Retrieved from [http://www.eu-ssa.org/essa\\_wp/wp-content/uploads/2013/08/The-Prevalence-of-Corruption-in-International-Sport.pdf](http://www.eu-ssa.org/essa_wp/wp-content/uploads/2013/08/The-Prevalence-of-Corruption-in-International-Sport.pdf)
-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main.jsp>)
- 서울신문, 2017. 1. 15, “돈에 현혹된 스포츠정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16025006&wlog\\_tag3=daum](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116025006&wlog_tag3=daum), 최종검색일: 2020. 1. 25)
- 스트레이트뉴스, “합법 멈춘사이 100조 넘어선 국내불법도박”,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988>, 최종검색일: 2020. 1. 30.
- 조선일보, “프로야구 김OO 선수 승부 조작했다 자백”,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9/201202290016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2/29/2012022900164.html), 최종검색일: 2020. 1. 25.
- 중앙일보, “아버지 죽음 부른 ‘태권도 승부조작’ 사실로”, 2014, 9, 16(<https://news.joins.com/article/15815317>). 최종검색일 2020. 2. 2.)
- 연합뉴스, “프로축구 이어 프로배구도 승부조작 적발”, 2012년2월8(<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7&oid=001&aid=0005502267> 최종검색일 2020. 1. 30).

연합뉴스, 2010. 10.22,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프로게이머 집행유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4722336> 최종검색일 : 2020. 2. 4).  
한국일보,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제도 개편, 소년체전 개편 등이 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6041642079082?did=PA&dtype=3&dtypecode=1954>,  
최종검색일 : 2020. 2. 1).

투고일자 : 2020. 03. 09

수정일자 : 2020. 03. 18

게재일자 : 2020. 03. 31

## &lt;국문초록&gt;

##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의 형사법적 고찰

설종호 · 정신교

스포츠 경기는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관중들은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사전에 경기에 대한 결과가 정해져 있다면 스포츠경기에 대한 관중의 흥미는 사라질 것이다.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은 사회병리현상의 하나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이면에는 인터넷의 보급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베팅을 할 수 있고 은밀성과 중독성이 그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국내 프로축구(2011), 프로야구(2012, 2016), 프로농구(2015), 프로배구(2016) 등 4대 프로스포츠가 승부조작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며 e-스포츠(2010)에도 승부조작이 발생하였다. 스포츠 승부조작은 심판매수, 병역 비리, 조직폭력배의 개입, 불법사이트 개설 등으로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하나의 범죄행위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승부조작에 대해 무관용 원칙, 법률 개정을 통한 승부조작 가담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기분 강화 등 내놓았다.

스포츠경기 승부조작은 형법상 도박죄, 도박장개설죄, 배임수증재죄, 업무방해죄,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복권의 발행대상이 되는 스포츠 종목에 대한 승부조작은 스포츠 복표관련 형사특별법 나아가 형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그럼에도 인터넷을 통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고 은밀한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방식에 의해서도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스포츠 승부조작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령의 적용과 처벌, 선수 등 스포츠 관계자에 대한 윤리교육의 강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스포츠 승부조작에 대해 관련법의 정의 정비와 더 나아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스포츠경기, 승부조작, 도박죄, 불법도박사이트, 복권